



Market Index / 18일

코스피지수 ▼	2864.24 -25.86	코스닥지수 ▼	943.94 -13.96	유가(WTI, 달러) ▲	83.82 +1.70	환율(원)	1USD 100¥	살때 1212.86	팔때 1171.14	1EUR 1000원	살때 1385.18	팔때 1331.14	1CNY 100원	살때 196.84	팔때 178.10
---------	-------------------	---------	------------------	---------------	----------------	-------	--------------	---------------	---------------	---------------	---------------	---------------	--------------	--------------	--------------

# 감귤재배면적 10년 후 7.4% 감소 예상

농촌경제연구원 “2만2029ha에서 2031년 2만400ha 전망”  
생산성 높은 품종 갱신·시설재배로 생산량은 작년 수준  
만감류 소비자 만족도 천혜향·한라봉·레드향 순 높아

감귤 재배면적이 중장기적으로 완만히 감소해 2031년에는 2만400ha로 현재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만감류와 시설재배로 작형을 전환하면서 재배면적 감소 대비 생산량 감소폭은 작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인당 감귤 소비량은 2031년 11.9kg으로 예측됐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감귤 재배면적은 완만히 감소해 2021년 2만2029ha에서 2026년 2만1100ha, 오는 2031년에는 2만400ha로 2021년 대비 7.4%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감귤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속에서도 2031년에도 2021년(61만5000t)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성이 높은 품종으로의 갱신과 시설재배로 작형이 전환되며 단수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올해 64만5000t에서 2026년 62만8000t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1인당 감귤 소비량은 2021년 11.8kg에서 2022년 12.4kg, 2031년에는 11.9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감귤재배면적은 2만1857ha

로 작년 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온주감귤 재배면적은 작년 대비 1.1% 감소가 예상됐는데 노지와 월동은 각각 1.2%, 1.6% 감소하고 하우스는 5.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만감류 재배는 작년 대비 0.3% 증가하는데 천혜향(3.9%)과 레드향(3.7%)은 증가하

는 반면 한라봉은 1.2% 감소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감귤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온주감귤 재배면적 감소세가 지속돼 성목면적은 작년 대비 1% 감소하고, 만감류로 작형 전환과 품종 갱신이 늘어 유목면적은 9% 증가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지난해 12월 만감류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91%가 만감류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매 이유는 ▷맛(당도)이 좋아 보여서(67%) ▷선물용으로(17%) ▷일반감귤과 다를 것 같아서(8%)로 나타났다.

구매 만족도는 천혜향(80%), 한라봉(72%), 레드향(71%), 황금향(66%) 순이고, 만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2~4%에 그쳤다. 재구매 의향은 대부분 품종에서 긍정적이던데 반해 한라봉은 ‘늘림(10%)’ 보다 ‘줄임(17%)’ 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아 다른 만감류에 견줘 선호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점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기동반 직원들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 제주관광 코로나19 사태 속 ‘회복세’

카드사용 분석결과 지난해 소비액 전년보다 22%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제주관광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총 관광지출액은 5712억원으로 전년(4671억원) 대비 22%

가량 증가했다. 해당 데이터는 관광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특정 신용카드(비씨카드) 이용 고객의 소비액을 분석한 결과다.

최근 4년간 도내 관광지출액은

2018년 7291억원에서 2019년 6767억원, 2020년 4671억원 등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5712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시작된 2020년 감염 우려에 따른 여행 심리 위축 등으로 도내 관광지출이 급감했지만, 지난해에는 국내 관광객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을 회복하면서 다시 지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도내 업종별 지출액 비중은 식음료가 2377억원(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사 1176억원(20.6%), 숙박업 816억원(14.3%), 레저스포츠 486억원(8.5%), 쇼핑 306억원(5.4%), 면세점 256억원(4.5%), 렌터카 160억원(2.8%), 문화서비스 및 유원시설 100억원(1.8%), 여행업(26억원(0.5%), 대중교통 4900여만원(0.1%), 카지노 690만원(0.0%)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면세점의 지출액은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태원기자

# 제주 민간아파트 분양가 5년새 갑절 넘게 뛰었다

2016년 12월 ㎡당 313만원 → 작년 말 657만원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가 최근 5년 새 갑절 이상 올라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작년에 유독 컸는데, 부동산 규제지역을 피해 제주로 투기성 수요가 몰리는데 연동에서 도내 역대 최고가 민간아파트 분양 후 주변 시세를 자극하며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가 10억원 이상인 아파트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일각에선 재개발 아파트가 속속 생겨나며 공급가격이 더욱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아파트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0년 기준 도내 일반가구가 사는 거처 비율은 아파트가 25.6%로 전국(51.5%) 대비 25.9%포인트(p) 낮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말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657만원으로 전년동월(465만원) 대비 41.4%(193만원) 올랐다. 상승률로는 전국평균 10.4%(388만→428만원)를 크게 웃돌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

았다. ㎡당 분양가격은 서울(998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비쌌다.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최근 5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더 무섭다. 2016년 12월 도내 분양가격은 ㎡당 313만원으로 5년 사이에 109.9%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전국평균 상승률 47.5%(290만→428만원)보다 갑절 이상이다.

도내 분양가격 오름세는 지난해 유난히 두드러졌다. 2020년 12월만 해도 ㎡당 465만원이던 것이 2021년 1월 520만원, 3월 720만원, 7월엔 836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그 후 10월 686만원, 12월 657만원으로 소폭 꺾이긴 했지만 제주의 경우 아파트 분양 세대가 워낙 적은 두 개 아파트 분양가격에 따라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도내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5년 전 가격이 전국 6번째 수준에서 작년 12월에는 2번째로 뛰면서 ㎡당 부산(508만원), 대구(485만원), 인천(455만원), 경기(446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제주지역 농·축협 여신 건전성 ‘양호’

작년말 23개 농·축협 중 17개 클린뱅크 달성

제주지역 농·축협의 여신 건전성이 양호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클린뱅크 농·축협’ 평가에서 도내 23개 농·축협 중 17개(74%)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대비 3개가 늘어난 것으로, 전국 1118개 농·축협 중 393개(35%)가 선정된 것에 견주면 제주가 월등히 높다.

최근 5년 연속 클린뱅크를 달성

한 농·축협에 부여하는 자산건전성 최고등급인 ‘그랑프리’를 획득한 전국 10개 농·축협에 도내에서는 서귀포농협(조합장 현영택), 서귀포시축협(조합장 김용관), 안덕농협(조합장 유봉성), 효돈농협(조합장 백성익)이 선정돼 유공직원 표창과 클린뱅크 인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특히 서귀포농협은 7년 연속, 안덕농협·효돈농협은 6년 연속, 서귀포시축협은 3년 연속 그랑프리 등급을 부여받았다.

문미숙기자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달팽이추출물 핵심 성분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앞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박시라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호소당밀 과일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용량 : 20kg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박시라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 하하농법으로 대박나는 농사름!!

하하농법
이달의 농사 메모
하하농법

**하하농법이란** **희토류의 H와 아미노산의 A의 융합으로 21세기 최첨단 농법을 말한다**

☑ **만감류(한라봉·레드향·천혜향)**

- 수확이 끝나면 수세회복을 위해 3일 동안 관수해 준다.(추울때는 하지말것)
- 관수가 끝나 5일후에 형태적 화아분화를 위해 해피한 그린 + 글루칼을 5~7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유기질 비료 및 복합 비료는 2월 20일 이후에 시비할 것

☑ **키 위**

- 해피한 그린 + 글루칼 + 보르도액(5kg)을 20일 간격으로 엽면 시비할 것

☑ **마늘·양파**

- 수세가 약하거나 늦게 파종한 농가에서는 잘커진액 + 희토류 + 농약혼용 살포해 줄것
- 세균성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바이패스를 혼용 살포해 줄것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